

커피 찌꺼기가 스타벅스 쟁반으로... 韓 첫 순환자원제품 인증

환경부, 스타벅스·삼성 확인서 발급
삼성전자, 폐 IC트레이 원료 사용
스타벅스, 추출 커피찌꺼기 활용

스타벅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재활용해 만든 쟁반이 국내 최초의 '순환자원 사용제품'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SCK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IC트레이'를 순환자원 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관련 인증마크가 붙게 된다.

스타벅스커피박트레이는 매장에서 원두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찌꺼기를 제품 제조원료(20%)로 사용했다. 삼성전자 IC트레이는 충남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 IC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원료(12%)로 썼다. IC트레이란 반도체집 제조 공정상 이동 또는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뜻한다.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올해 1월 시행)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이 함유돼야 한다.

확인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



원두 팩 파우치·커피박 트레이 모습.

/스타벅스코리아

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기업의 경우,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 심사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현장조사 등을 거쳐 해당 제품의 원료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 여부 및 비율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받는다.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단체나 일반 기업에도 우선구매를 요청하거나 또는 권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며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과 생산량 평년 수준... 화상병 경계 강화”

송미령 장관, 예산농가 생육상황 점검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49만 톤(t)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급등한 바 있는 사과 가격의 안정화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사과 주산지인 충남 예산의 한 사과 농가 및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과 농가 방문은 '2024 사과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송 장관은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 등 생육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t)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과수 화상병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발생면적은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1%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충남 예산의 한 사과 농가를 찾아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수 화상병 확산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그는 의심되는 나무 발견 시 바로 신고해달라며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작업도구 소독, 과원출입 통제, 작업자 관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폭염과 태풍, 탄저병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해서는 “농협·농촌진흥청·지자체가 합세해 방제약제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경영정보 시각화능력시험’ 5233명 몰려

첫 시험에 20·30대 중심으로 응시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8일 제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BISpecialist)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첫 시험에도 불구하고 20~30대를 중심으로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총 5233명이 응시해 정보시각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드러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프로그램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이다.

고용부는 BI 프로그램 활용능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새로운 국가 기술자격으로 신설했다. 시험은 단일 등급으로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성별은 여성(51.5%)이 남성(48.5%)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43.1%)가 가장 많았고, 30대(35.0%), 40대(14.9%), 50대(6.0%), 10대(0.5%) 순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임금근로자(53%), 구직자(23%), 학생(16%) 순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온라인쇼핑 19.8조... 농축수산물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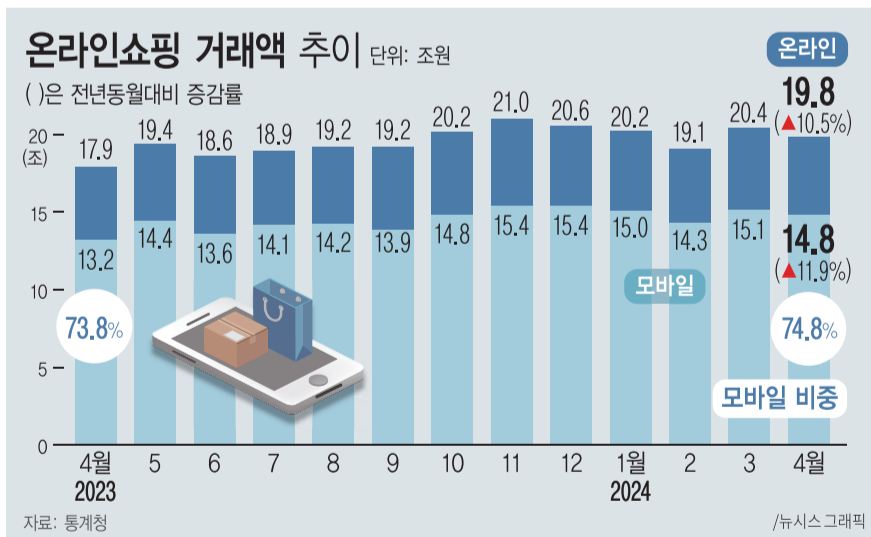
통계청,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 생필품 등 전반적 우상향 추세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10%대의 증가 폭을 보이며 월 거래규모 20조 원 안팎의 호조를 지속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에 지원한 할인행사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해 2000억 원 넘게 늘어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늘어났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생필품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수요가 이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수 쪽의 오프라인 부분이 다소 부진하지만, 온라인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라며 “생필품 위주로 온라인이 가격 비교 등이 용이한 영향으로 대부분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동월대비 26.2%(2058억 원) 증가했다.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할인행사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음식료품(18.0%, 4242억 원)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14.7%, 2683억 원)의 거래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가방(-10.3%), 신발(-2.3%) 등 비필수 소비재 거래액은 1년 전보다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미하지만 가방, 신발 쪽이 조금 줄었다”며 “신학기인 3월이 지나고 4월부터는 실질 구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꼭 생필품이 아닌 부분은 조금 줄일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0%), 음식서비스(11.2%),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1.9%(1조5753억 원) 증가한 14조 80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74.8%였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중에서 가방(-9.2%) 등이 줄었지만 음·식료품(23.0%), 여행 및 교통서비스(14.1%)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7%)가 가장 높았고, 음·식료품(14.4%)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9.9%)가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6%)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애완용품(83.0%), 아동 유아용품(81.4%) 순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협 “반디 R&D 세액공제 연장돼야”

규제 애로 116건 건의문 정부에 전달

한국무협협회는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협업계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협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협은 건의문에서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범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 발 흥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 및 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